

(3) 광주대교구의 발전배경

① 1785년을 전후하여 천주교회가 뿌리를 내린 이후 계속적인 박해의 수난을 거치면서 1831년 9월 9일 조선교구가 공식적으로 설정되었다. 지방에는 1911년 4월 8일에 최초로 대구대목구가¹⁾ 신설되어 전라도지역은 여기에 속해 있었다. 그후 1936년 대구교구 설정 제25주년을 맞이하여 다블뤼(Daveluy, 안돈이) 주교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감목대리구를²⁾ 각각 정식 교구로 설정할 것을 교황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1937년 4월 13일 광주지목구와³⁾ 전주지목구가 설립되었다.

② 광주대교구의 설정과정

- 1831. 9. 9.: 조선대목구 설정
- 1911. 4. 8.: 대구대목구 설정
- 1931. 3. 10.: 전북감목대리구 설정
- 1934. 5. 10.: 전남감목대리구 설정
- 1937. 4. 13.: 광주지목구 설정
- 1957. 1. 21.: 광주대목구 설정
- 1962. 3. 10.: 광주대교구 설정

③ 1957년 1월 21일 광주지목구가 20년 만에 광주대목구로 승격되었다. 그래서 당시 광주지목구의 교구장이었던 현신부는 대목구로의 승격과 동시에 지목교구장에서 대목교구장(교황대리교구장)으로 승진되어 그해 5월 11일 미국 보스턴에서 성성식(成聖式)을 가졌다.

④ 1962년 3월 10일 교황 요한 23세로부터 한국 천주교회 교계제도(敎階制度)⁴⁾ 설정에 따라 광주대목구가 한국 3대 대교구(서울대교구, 대구대교구, 광주대교구)의 하나로 승격되었으며 동시에 현 교구장은 대주교로 서품되었다. 현 대주교의 착좌식은 1962년 7월 4일에 주교좌성당인 광주 북동성당에서 거행되었다. 이때의 본당수는 31개 소, 신자수는 6만 1,961명이었다.

-
- 1) 포교지역에 적용된 교구제도(敎區制度)로서 교회의 조직이 아직 발전 중에 있는 포교지역의 교회를 위해 정식 교구제도에 준한 교구제도를 대목구(代牧區)라 한다.
 - 2) 감목대리구(監牧代理區)는 교구 차원의 조직이 아니고 교구에 속하는 교회의 구획지구(區劃地區)의 하나이다. 이 지구장을 감목대리라 한다.
 - 3) 지목구(知牧區)는 대목(代牧)의 전 단계로 지역이 좁거나 교회조직이 덜 발전한 지역에서 적용되는 것이 지목구이며 이 구역의 책임자는 지목(知牧)이라고 부른다.
 - 4)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체제의 기본이며 신품권(神品權)과 재치권(裁治權)으로 나눌 수 있다. 신품권에 의한 교계제도는 미사집전과 관련되는 주교·사제·부제 세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치권에 의한 것은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입법·사법·행정권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교황과 주교의 권한을 말한다.

참고로 가톨릭교회 성직계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황(敎皇, Pope), 추기경(樞機卿, Cardinal), 총대주교(總大主教, Patriarch), 대주교(大主教, Archbishop), 주교(主教, Bishop), 신부(神父, 司祭, Priest, Father), 보좌신부(補佐神父, Curate), 부제(副祭, Deacon)